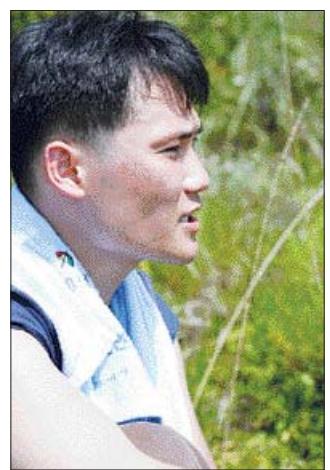


“광주 친구들에 인정받는게 목표”



대한민국영화대상 '단편상'
호남대 출신 이성태 감독

“광주에 있는 친구들이 ‘아재미있다’고 평할 수 있는 영화를 만드는 것”

최근 열린 제6회 대한민국 영화대상에서 단편영화상을 받은 이성태(31) 감독의 목표다.

이 감독은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서 복무중인 군인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십분간 휴식’을 통해 한국

영화계를 주름 잡는 영화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십분간 휴식’은 배우 4명을 포함, 총 10명이 참여해 만든 27분 짜리 영화지만 전주국제영화제 특별언급, 일본 이미지포럼 초청, 제주영화제 우수상, 밴쿠버영화제 응모상 등을 안겨준 단편영화인들 사이에 그가 존경하는 이창동 감독 못지 않은 유명세를 얻게 한 출세작이 됐다.

지난 2004년 호남대학교 대학원 영상학과를 졸업한 이 감독은 대학 시절부터 탄탄한 구성과 연출력을 선보여 ‘될성부른 뛰임’으로 통했다.

‘십분간 휴식’의 원작은 대학 2학년 재학시절 만든 ‘저승색’였다.

고등학교 졸업 후 장현수 감독의 ‘개인의 법칙’을 보고 영화감독의 꿈을 키우기 시작한 그는 ‘만들어진 사람’이 아닌 ‘진짜 사람’의 삶을 보여주면서 재미를 줄 수 있는 영화를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광양제철소 박근수·최병주씨
자원봉사자대회 ‘행자부장관’ 표창

광양제철소 박근수(47·생산기술부·사진 왼쪽)·최병주(54·화성부)씨가 5일 경기도 광주 시민회관에서 열린 ‘2007 전국 자원봉사자 대회’에서 우수 자원봉사자로 선정돼 행자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프렌즈봉사단’ 단장인 박씨는 광양지역 외국인 근로자 고충 처리, 재가 장애인·소년소녀 가장 후원 등 각종 봉사활동을 활발히 펼쳐왔다.

최씨는 ‘사랑나눔 봉사단’에서 회장을 맡아 광양시 시각장애인 협회 봉사활동, 태인동 노인편의시설 마련 등 모범적으로 봉사단을 이끌어 왔다.

/광양=김춘호기자 chkm@

10대 그룹 소녀시대 ‘올해의 외신홍보상’



SM엔터테인먼트 소속 10대 그룹 소녀시대가 올해의 외신홍보상을 받았다.

소녀시대는 5일 오후 7시 서울 프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송년자선의 밤’ 행사에서 열린 시상식에 참석해 수상의 기쁨을 안았다.

올해로 5회를 맞은 외신홍보상은 서울에 상주하는 외신기자들이 투표로 수상자를 선정, 한해 동안 외신을 통해 해외에 한국을 긍정적으로 알리는 데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 수여한다.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무료로 실어 드립니다. People@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7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62) 2200-634 FAX (062) 222-4938, 222-4918

화족

▲강남배(전 한국통신)씨 장남 민구(삼성전자 사원)군 김종옥씨 차녀 지혜(화원원장)=8일(토) 오후 2시 상무리조컨센서웨딩홀 1층 아이비홀.

▲박진원(영암군 신복 농민회장)씨 3남 정훈(광주일보 판매국)군 김성섭씨 막내 미현양=9일(일) 낮 12시 10분 광주대 입구 센트럴웨딩컨벤션 2층 해피홀, 피로연 8일(토) 낮 12시 신복회관 1층 아이비홀.

▲나점님씨 차남 윤재홍군 공준환(전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 사무처장)씨 4녀 솔원양=9일(일) 낮 12시 30분 오페라하우스 1층.

▲이경직씨 장남 승준(KBS 광주방송총국 보도국 영상취재팀 기자)군 장병수씨 차녀 미란양=9일(일) 오후 1시 전주월드컵컨센서웨딩센

“당신의 따뜻한 사랑, 자선냄비에 담아 주세요”

■ 11일 시종식 갖는 구세군 사관 이기풍·신현후 씨 부부

“딸랑딸랑” “어려운 이웃을 도웁시다.”

연말 어김없이 들을 수 있는 구세군(救世軍)의 종소리, 올해는 오는 11일부터 울린다.

‘세상을 구하는 군대’라는 뜻을 가진 구세군 사관인 이기풍(52·신현후(여·49)씨 부부도 이 때문에 빨간색 자선냄비를 닦고 놗쇠 종에 기름칠을 하느라 바쁘다.

이들은 지난 1982년 광주 구세군 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26년째 광주 구세군 사관 제복을 입고 목회자로서 삶을 살아오고 있다. 특히 매년 11월 중순부터 12월 초가 되면 함께 모금활동을 할 자원봉사를 모집하고 교육까지 해야해 더 없이 바쁘다.

현재 모금활동에 함께 나서겠다고 자원봉사를 자청한 신도는 10명 내외, 대부분 20~50대의 회사원·대학생·주부들이다. 저마다 생활이 있어 한 번씩 모이는 일은 쉽지 않다. 교회 예배 시간을 마친 후 일주일에 2번씩 모금활동을 어떻게 할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할지 등을 하나씩 짐작해 가고 있다. 대부분 거리에서 이뤄지는 모금 활동이라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춥다고 움츠려 있거나 다리가 아프다고 쪼그려 앉아 있을 수도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자세를 익혀야 한다. 또 취직 등 일부 시민들에게 이해를 끌어갈지도 모르는 돌발상황에 대비해 얼굴 찌푸리지 않고 웃으며 대처하려면 미리 준비를

해둬야 한다.

고등학교 때부터 구세군을 꿈꿨다는 이 사관은 “내가 불우 이웃이라며 행패를 부리는 취객이나 종소리가 시끄럽다는 일부 상인들도 있지만 대부분 감동적인 순간이 훨씬 많았다”고 말했다.

이 사관 부부는 고사리 같은 손에 드린 동전, 폐지를 줍는 허름한 옷차림의 할아버지가 넣는 쌈짓돈 등 시민들의 주머니 속에서 나오는 까짓꼬짓한 돈을 볼 때마다 엄마가 줘 준 천 원짜리를 내기 위해 주뼛주뼛 다가와 돈을 넣고 후다닥 엄마 뒤로 숨는 아이들, 적은 돈을 넣어서 미안한 표정을 짓는 시민들의 얼굴 표정 하나하나가 감동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폐지 줍는 노인도 쌈짓돈 꺼내

동전 넣는 꼬마들 얼굴 보며 행복

신 사관은 “구세군 생활을 하며 경제적으로 끝까지 지낼 수는 없지만 누군가에게 도움과 사랑을 줄 수 있어 행복하다”며 “이름도 밝히지 않은 채 매년 100만원을 넣고 가는 50대 아

주머니의 수수했던 모습은 1년이 지났어도 아직도 생생하다”고 말했다.

이 사관은 “몇 해 동안 이어지는 경기불황 때



광주 구세군 교회는 오는 11일 시종식을 시작으로 자선냄비 모금활동에 들어간다. 이기풍·신현후 부부 사관과 자원봉사자 순성필·임양술·남관운·이재광(원쪽부터)씨가 모금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친 후 ‘나눔의 전령사’가 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구세군(救世軍)=1865년 영국의 감리교 목사였던 ‘윌리엄 부스’가 빈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창설한 ‘기독교 선교회’.

1878년 군대식 제도를 도입해 ‘구세군’으로 이름을 바꾸고 본격적인 자선 활동을 벌였다. 국내에서는 1928년 12월 서울시 중구 명동에 자선냄비가 첫 선을 보였다.

인사

여수시청 박정명씨
‘청백봉사상’ 수상



박정명 여수시 청농업정책과 축산담당이 청백봉사상을 수상했다.

박씨는 지난 87년부터 90년까지 도서전기사업 담당자로 일하며 당시 4시간에 불과했던 15개 마을 1천331세대의 발전시설 용량을 24시간으로 늘리는데 기여했다.

특히 87년부터 20년 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무료 가훈 써주기’와 지역 내 70세 이상 2천760명에게 ‘무료 영정사진’ 촬영을 계속해 오고 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행정자치부

◇ 일반직고위공무원 전보

▲ 공무원노사협력관 이개호

◆법무부

◇서기관 전보

▲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서유교

◆KT

◇부사장 승진 ▲ 기획부문장 서정수

◆ ▲ 지원부문장 박혁권

◇ 전무 승진 ▲ Business부문장 김영환 ▲ 수도권광복본부장 김성만 ▲ 연구위원회 노희창

◇ 삼무 승진

▲ 전남본부장 송기우 ▲ 전북본부장 명성호

◆ 금호생명

◇ 팀장 ▲ CRM팀 이현삼 ▲ 마케팅 전략팀 손석규 ▲ CS혁신팀 김병수

◇ 지점장 ▲ 동남지점 양양석



“어르신들, 이젠 난방비 걱정 마세요”

상무경로당에 ‘사랑나눔 1호점’ 착공

‘가스사랑협의회’ 조두현 회장

“경로당의 난방비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소식을 듣고 힘을 모았습니다.”

광주지역 13개 도시가스공업체 대표들로 구성된 ‘가스사랑협의회’ 조두현(서광설비 대표) 회장은 지난 4일 상무경로당의 도시가스시설을 무료로 설치하는 착공식을 갖은 직후 이렇게 말했다. 가스시공업체들이 고유가로 난방비 부담이 늘고 있는 노인들을 돋기 위해 직접 나선 것이다.

상무경로당은 이번 공사가 마무리되는 10일께 ‘가스사랑협의회’가 지정하는 ‘사랑나눔 1호점’이 되는데 기준에 난방연료로 사용하면 등유(1ℓ 당 1천86원)가 산업용 LNG천연가



스(1루배당 587원)로 바뀌면서 난방비 부담이 25~30%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가스사랑협의회’는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마련하기 위해 회원들이 매달 납부하는 회비(1인당 10만원)와 공사수주액의 1.5%를 적립하고 있다.

앞으로도 사업비가 모아지면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주)해양도시가스의 협조를 받아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가정에 대한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벌친다는 계획이다.

조 회장은 “일부 회원들이 저소득가정을 돋고 있는 것을 알고 좋은 일은 함께 하자는 생각에서 사업을 시작했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현주기자 ahj@kwangju.co.kr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이란 관광객 유도를 위해 관광지에 얹힌 이야기를 재미있게 꾸며 만든 새로운 창작물을 말한다.

최 씨는 전남도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조성사업(J프로젝트)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염원하고, 미래는 꿈꾸는 자의 끝이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만들었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전남도 관광투자유치 TF팀 최석남씨
문광부 ‘스토리텔링 공모전’ 최우수상

전남도 관광투자유치 TF팀 최석남(행정 6급)씨가 7일 문광부 주최 ‘관광레저도시 스토리텔링 공모전’ 최우수상을 받는다.

입상자 17명 가운데 자치단체 공무원으로는 최 씨가 유일하다.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이란 관광객 유도를 위해 관광지에 얹힌 이야기를 재미있게 꾸며 만든 새로운 창작물을 말한다.

최 씨는 전남도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조성사업(J프로젝트)

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염원하고, 미래는 꿈꾸는 자의 끝이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만들었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박정식 오로상 사 대표이사는 6일 열린 광주자동차 매매사업조합 일시총회에서 제 7대 광주자동차매매사업조합 이사장으로 당선됐다.

시30분 오리마을 식당. 011-607-2461

향우회

▲재광 보성을 향우회(회장 안명섭) 모임=10일(월) 오후 6시30분 자연생활체육부부. 228-0485

▲재광 나주향우회 정기 이사회=11일(화) 오후 6시 탑하우스. 367-8881

모임

▲광주지방변호사 사무직원회 송

